

제때에 업그레이드 하고 본토문화에 대해 잘 파악했을 경우 대리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이슈3) 중국 국산영화 우수 극본 부족 현상 분석

2007-8-25중국망

최근 몇 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집에서 TV를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극장에 가서 더욱 우수한 시각 효과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영화산업은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은 총 330부 영화를 제작해 제작수가 2005년 동기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누적 티켓 판매수입은 14.42억 위안으로서 같은 해 티켓 판매 총액의 55.03%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 중에서 <황후화>와 <야연>은 할리우드 영화들을 물리치고 2006년 티켓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는 결코 중국 국산영화가 외국 영화들의 틈 속에서 힘겹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국가 영화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블록버스터급 영화와의 경쟁 속에서 2006년에 제작된 300여부 영화 중 겨우 137부가 극장에서 상영되었으며 또한 상영 시간도 외국 영화의 상영시간을 피해갔어야 했다.

중국 관중들은 중국 국산영화를 어떻게 생각 할까? 또한 경쟁 속에서 중국 국산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중국 사회조사소(SSIC)는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심양, 하얼빈, 대련, 정주, 성도, 무한 등 지역의 관중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중 76.7%가 최근 1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적 있다고 하였으며 "최근 1년에 영화관에 다녀온 횟수"에 대한 문의 조사에서 64.7%의 시민이 "1회에서 3회"를 선택하고 22.1%의 시민이 "3-5회"를 선택했으며 겨우 13.2%의 시민이 "5회 이상"을 선택하였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는 현재 중국에서 이미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연 평균 영화 관람 횟수가 5회 이상인 미국과 비교할 때 중국 영화산업의 소비 잠재력은 아직 무궁무진함을 보여준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경우 어느 나라(지역)의 영화를 선택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1.9%가 "유럽, 미국"을 선택하고 29.3%가 "홍콩, 대만", 12.4%가 "중국 대륙", 이외 6.2%가 "일본, 한국"과 "기타"를 선택했다. 시민들이 영화 생산 지역에

대한 선택을 볼 때 유럽 및 미국의 영화가 현저한 우세를 나타냈다. 중국 국산영화, 근대 상업화 영화도 일정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중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여전히 기타 영화보다 약했다.

"국산 영화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 23.3%가 "만족", 7.8%가 "잘 모르겠다", 67.8%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를 선택했다. 관중들은 대부분 중국 국산영화 수준에 큰 기대를 품지 않고 있다.

"영화 관람 시 영화에 가장 관심 가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안은 "스토리"로 전체 조사대상의 36.7%를 차지하였으며, 2위가 "시각 및 음향효과"로서 25.6%를 차지했다. 이 문제와 대응되는 "중국 국산영화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이 선택한 답안이 "문화 및 의의"로서 전체 인수의 37.1%를 차지했으며, "국산 영화가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42.4%가 "우수 극본 창작"을 선택했다.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관중들은 영화의 이야기 즐거리에 가장 주목하며 영화의 시각 및 음향효과도 극장이 관중들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국산 영화의 창작에 관련해 조사 대상은 내포된 함의와 문화의 우세를 인정했지만 더욱 다양한 소재의 극본 창작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 상업 영화의 대거 진입에 맞서 중국 국산영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부 관련부문이 중국 국산 영화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는 질문에 대해 겨우 19.0%의 조사대상이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28.3%가 "잘 모르겠다" 하고 52.7%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대부분 관중들은 정부 관련 부문이 더욱 철저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 중국 국산 영화의 발전을 추진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아래 어떤 조치들이 중국 국산영화의 발전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답안으로는 "우수한 영화 인재 배양"이 77.8%, "영화 제작 문턱 낮춰야 함"이 58.9%, "우수 국산 영화 장려"가 50.0%를 차지했다. 그리고 "해적판 단속, 지적재산권 보호"는 겨우 12.7%를 차지했다. 대부분 조사 대상은 우수한 영화 인재가 부족하고 제작 요구가 높은 것이 중국 국산영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품 음반영상제품 내용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것도 시민들이 해적판을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산영화의 발전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 45.3%가 "낙관적"이라고 하였으며 22.4%가 "현황 유지"를 선택하였고 24.5%가 "우려

된다"고 하였으며 7.8%가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부분 조사 대상이 중국 국산 영화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국산영화는 급속히 발전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 영화와의 대결에서 여전히 열세에 처해있다. 중국 국산영화는 중화문화 및 의의라는 장점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과 새로운 창작을 통해 자신만의 특색을 갖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중국 정부도 영화산업화의 발길을 다그쳐 영화문화 사업의 발전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